# 기신론서 설해진 여래장연기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의 기본 교리는 연기설이 주축을 이룬다. 범어의 어원을 밝혀 말하면 쁘라티티야(pratitya)는 연(緣)의 뜻이고, 삼우뜨빠다(samutpada)는 기(起)의 뜻이다. 연기는 곧 말미암아 일어난다. 혹은 어떤 관계,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존재가 상의상존(相依相存)하면서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법칙을 말한다. 근본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연기법을 깨달았다고도 말한다.

〈중아함경〉에 "연기를 보는 이는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이는 여래를 본다(其覩緣起 則見於法 其見法者 則見如來)"고 하였다. 또 〈잡아함경〉에 연기를 규정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는 구절도 나온다. 그런데 이 연기설이 초기불교에서는 십이연기로 설해진 이후 역사적으로 불교의 교리가 발달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연기설이 나오게 되었다.

인도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 등에서 내세워진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과 유식(唯識)에서 내세운 아뢰야연기설(阿賴耶緣起說)이 나왔고, 다음 성종(性宗)에서 내세운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이 나왔다. 이어 화엄경을 소의로 한 화엄종에서 다시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이 나오고 진언종에서 나온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 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 중 진여연기설을 여래장연기설(如來藏緣起說)이라고도 말하며, 법계연기설을 무진연기설(無盡緣起說)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주로 연기의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기설의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기신론에서 설해진 내용은 어떤 연기설에 해당될까? 예로부터 기신론에서 설해진 내용을 진여연기설 혹은 여래장연기설이라 하였다. 여래장연기설은 여래장에 의해서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여래장연기설은 〈승만경〉, 〈밀엄경〉,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의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는 경론에 의거하여 내세워진 연기설이다. 아뢰야식과 여래장을 분리한 중관 및 유식의 교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내세워진 이론으로 현수가 내세운 화엄종의 오교판(五敎判) 가운데 대승종교(大乘宗敎)에 해당한다.

이 여래장연기설을 표방하는 사상을 종(宗)으로 말할 때는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 실상종(實相宗) 또는 진

**여래장에 의해 생사열반 있어**
**화엄사상 완성되며 제대로 설명**

덕불공종(眞德不空宗)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화엄사상이 확립되기 이전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이 여래장연기라는 말을 먼저 썼다. 하지만 화엄사상을 완성한 현수법장(賢首法藏)에 의해 여래장연기설이 제대로 설명되었다. 현수는 여래장연기를 이(理)와 사(事)로 설명하였다. 여래장이 조건에 따라 아뢰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理)가 사(事)에 들어가기 때문이요, 반대로 의타기성(依他起性)인 현상세계가 자성이 없는 연기의 세계로서 진여와 동일하게 되는 것은 사(事)가 이(理)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래장연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理)와 사(事)가 원융무애(圓融無碍)하여 현상계와 여래장(본체계)이 상호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현수가 설명한 여래장연기설은 나중에 화엄의 이사교철(理事交徹) 또는 이사무애(理事無碍)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 화엄의 4법계 중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가 된다.

기신론 본문에서의 여래장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은 삼세육추(三細六 )의 구상차제(九相次第)를 설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래장(如來藏) 곧 진여불성(眞如佛性)이 무명에 의하여 흔들린다. 그리하여 아뢰야식이 된다. 이 과정이 근본무명에서 업상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아뢰야식을 기신론에서는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으로 본다. 여실히 진여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고 홀연히 원초적인 한 생각이 가장 미세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기고 주관으로 인해 객관이 나타난다.

# 목숨마저 아낌없이 주어야 '보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㊺보살이 해야 하는 것들

**一切衆生極重財利。樂愛命重於財物。一切衆生捨財為易捨命為難。菩薩捨一切財物歡喜。不如捨身命時得勝歡喜。種種施味悉知。以施為食。因之得存。與他樂者欲知施身氣味故施身。見他乞支體者心中歡喜勝於捨財歡喜。如樂施者得歡喜樂。不如菩薩捨身時得勝歡喜。閻浮提人乞財物者。無我福德故得乞身者來。捨財者財物由他或不稱意。捨身者我得自在。隨意捨與不由於他。此身不牢不定速朽之物。可愛念者可速疾取。諸食肉者語菩薩言。汝今以熱肉血施我。我當何以報恩。菩薩報言。若欲報恩者更語餘人。有悲心者能施身肉可往取之。若能如是便是報恩。(일체중생극중재리。락애명중어재물。일체중생사재위이사명위난。보살사일체재물환희。불여사신명시득승환희。종종시미실지。이시위식。인지득존。여타악자욕지시신기미고시신。견타걸지체자심중환희승어사재환희。여락시자득환희락。불여보살사신시득승환희。염부제인걸재물자。무아복덕고득걸신자래。사재자재물유타혹불칭의。사신자아득자재。수의사여불유어타。차신불뢰부정속후지물。가애념자가속질취。제식육자어보살언。여금이열육혈시아。아당하이보은。보살보언。약욕보은자경어여인。유비심자능시신육가왕취지。약능여시변시보은。)**

번역

일체 중생이 재물과 이익을 지극히 중히 여기나 즐거움과 애착과 목숨을 재물보다 중히 여깁니다. 일체 중생이 재물을 희사하는 것은 쉬우나 목숨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살은 일체 재물을 희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몸과 목숨을 버려 수승한 즐거움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지가지 보시의 맛을 다 알고 보시로서 음식을 삼는 까닭으로써 존재합니다.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는 몸과 기운을 보시하는 맛을 알고자 하여 몸을 보시합니다. 타인이 지체를 구걸하는 걸 보면 심중에 기쁨을 느끼는데, 재물을 희사하는 기쁨보다 수승하게 여깁니다. 보시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환희의 즐거움을 얻지만 보살이 몸을 버릴 때 얻는 수승한 즐거움 같지는 않습니다. 염부제에 사람이 재물을 구걸하는 것에 "나에게는 복덕이 없기 때문인데, 몸을 구걸하러 와서 얻으라" 합니다. 재물을 희사하는 이는 재물 때문에 타인이 혹,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몸을 희사하는 이는 내가 자재함을 얻으며 뜻에 따라 희사하여 주되 타의에 의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끌려가거나 머무르지 않나니 신속히 썩어질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애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히 가져가라 하면, 모든 몸을 먹는 이가 보살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뜨거운 고기와 피를 나에게 보시하는가? 내가 응당 어찌 보답을 할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기를 "만약 보답하고자 하는 이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말하시오. 자비심이 있는 이가 능히 몸과 고기를 보시하노니 와서 가져가시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한편 보답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해설

〈신약성경〉에도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맹신자들도 베풂과 사랑을 가르치거든, 인과를 믿는 불자들이 어찌 베풂에 인색할 수 있겠는가.

중생의 삶은 현상에 의한 현상에 속한 삶이기에 업을 떠나지 못한다. 다만, 오늘도 어떤 선업을 지을까 고민해야할 일이다. 재물을 바라면, 몸과 목숨마저 아낌없이 주어야 보살이라는 말에 가슴이 저린 날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반쪽짜리 자화상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들고 화가 나면 10분 안에 풀리는 사람이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으나 나의 젊은 시절 별명은 '버럭' 이거나 '불칼' 이었다. 성질이 지랄처럼 급하고 말투와 행동이 거시기하게 거칠었던 탓이다. 그러기는 하나 쉽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마음이 여리어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찔끔거리는 못난이 바보였다.

강한 자에겐 더욱 강하였고 적당히 타협하는 어설픈 일 따위는 체질상 맞지 않아 전쟁 아니면 평화였다. 학력이 초등학교에 턱걸이 하는 수준이라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돈만 생기면 서점에서 책을 샀다. 손에 잡히는 신문의 사설은 주제와는 상관없이 모조리 읽었고 인도로 떠날 때 쯤 모아둔 책이 3만권을 넘었다. 대화와 토론을 즐겼으나 나를 따르라는 투의 돈키호테 방식이었고 일방통행을 즐겨 누구에게나 밉상의 대상이었다.

## 갑자기 철들어 인도 등 구도행
## 15년 해외생활 버팀목 '無' 화두

거기다가 타고날 때부터 지지리도 못생긴 실패작의 수상쩍은 얼굴이라서 오해 아닌 선입견을 불러들였다. 막걸리 타입이라지만 체질상 맥주 반 컵으로 극락세계를 다녀올 만큼 술과는 거리가 멀다. 능청을 떨거나 아부를 하거나 트릭(trick)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설적인 바른 말을 즐겨 내 주변엔 사면초가라는 말이 제격일 만큼 적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성깔이 지랄 같고 싸가지 없는 일도 듬성듬성 삶의 비늘처럼 남기며 속도위반을 즐겼지만 재치와 유머를 사랑했다. 돈과 재물에는 비교적 자유로울 만큼 개운하게 살아왔고 누구와의 약속이던 약속장소에 10분전에는 도착해 있을 만큼 변명 늘어놓는 사람을 멀리했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부지런히 노력하는 새벽형 잡초였다. 대단히 조심스럽고 머뭇거릴 일이나 한 분의 총무원장 스님을 물러나게 하고 총무원의 부장과 국장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할 만큼 종단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전전생(前前生)의 일도 있었으니까.

그러던 향봉이 늦게야 철이 드는 것이다. 종단의 소임은 내장사 주지를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뼛속에 사무칠 만큼 간절하게 철이 드는 것이었다. 김치와 커피 맛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깨달은 내용을 얼마만큼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기록문화가 전혀 없던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기억해 문자로 옮겼을까?

진정한 의미의 무아(無我)는, 진여(眞如)는, 윤회(輪廻)는, 진공묘유(眞空妙有)는 무엇인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철저하게 간절하게 철이 들게 작용했다. 하여, 이름 그대로 개나리 봇짐 같은 배낭 하나 달랑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영어 문맹자의 노숙과 같은 나그네 삶이 간절심 하나로 모아져 치열한 구도자가 되는 것이다. 먹거리 문제로 거식 증세를 달고 살았고 물만 먹어도 배탈이 심해 설사는 일상의 일이었다. 빈대와 모기에 시달리며 말라리아병으로 쓰러지기도 했고 향수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한국을 떠올리며 엉엉 소리내어 흐느끼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무(無)자 화두로 간절심으로 채찍질하며 게으름 없이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경 한국에서 유학생 집으로 부쳐온 포켓 달력속의 무자(無字)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세상이, 진리의 세계가 환히 열리는 것이었다. 모든 의혹이 풀려 누가 무엇을 물어와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조어장부(調御丈夫)를 이룬 것이다.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에 대해, 바른 중도(中道)와 무아(無我)와 연기법칙(緣起法則)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완성하면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다. 날마다 좋은 날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깨닫기 이전도 사람이요 깨달은 이후도 사람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식(善知識)이다.

인도로 떠난지 15년 만에 해외생활을 마무리한다. 인도 3년, 네팔 2년, 티베트 3년, 그리고 중국에서 7년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경전과 선어록(禪語錄)을 살핀 후 귀국하게 된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